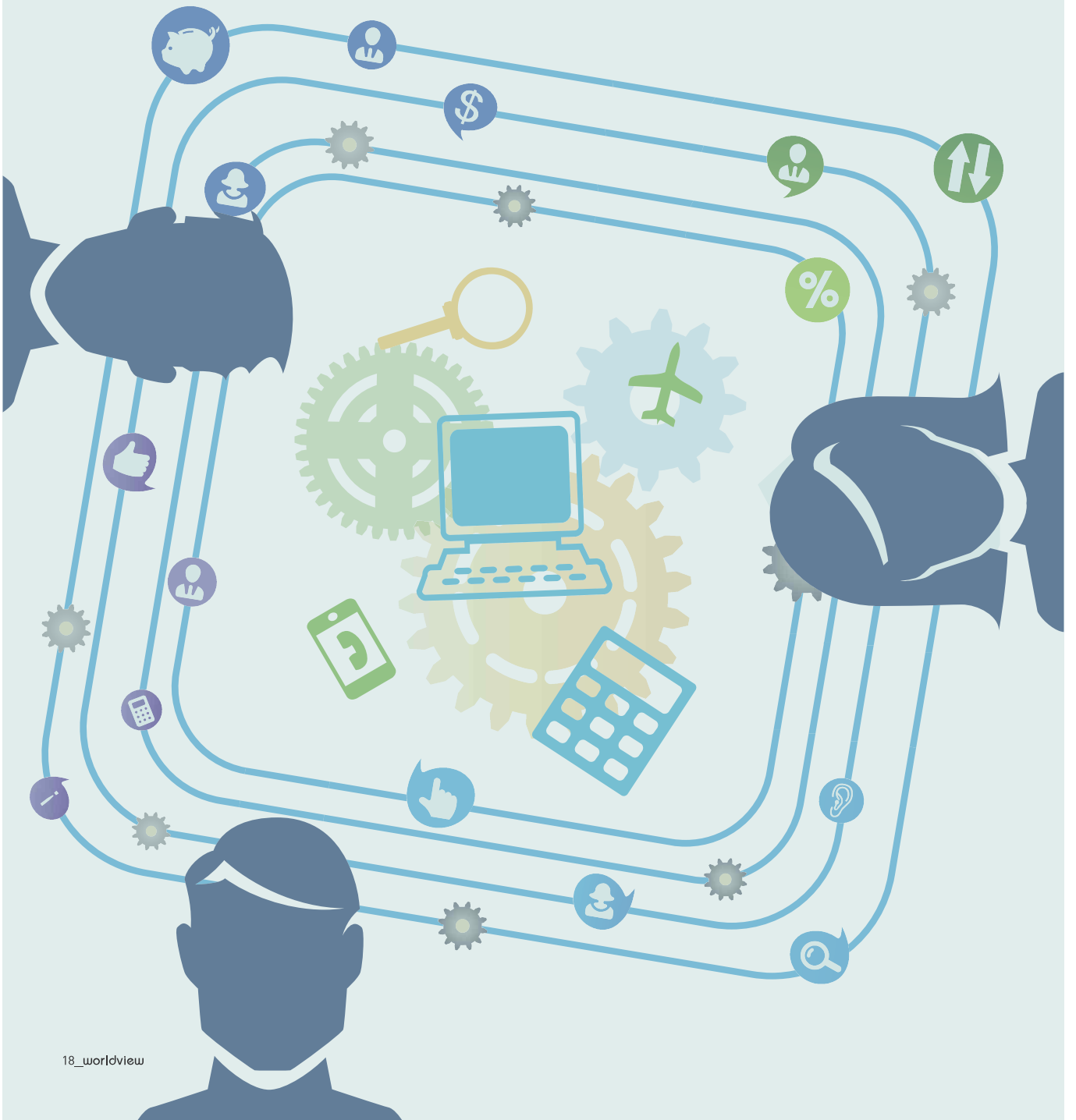


#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의 시대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손화철 (한동대 교수, 철학 전공)



캐나다의 영문학자이자 언론학자였던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은 의사소통의 매체가 의사소통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미디어가 메시지(The Medium is the Message)”라고 갈파했다. 그는 또 문자, 인쇄술, 전자통신과 같은 서로 다른 의사소통 기술들에 따라 인간의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 기관들이 서로 다른 비율로 사용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문자와 인쇄술은 모든 감각을 시각 중심으로 재편하였지만, 전자통신은 다시 청각과 촉각의 중요성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한 사회의 정신 세계뿐 아니라 생리현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실 이와 같은 이론을 굳이 들이대지 않더라도, 기술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이 바뀌고 그에 따라 공동체의 특징, 나아가서 공동체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물음은 갑자기 대세가 되어 버린 전자 기술을 통한 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SNS(Social Network Service)라 불리는 통로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떤 특징을 가지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먼저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의 여러 특징들과 그 함의를 살펴보자.

우선 의사소통 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SNS를 통해 불법적 선거운동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2007년의 대선 때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다. 2007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0.7%였고, 2010년 초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은 40만 명 정도, 트위터는 20만여 명의 이용자가 있었을 뿐이고, 당시 사이버 소통의 대세였던 싸이월드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멤버들끼리 소통하는 폐쇄형 SNS였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현재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0%, 페이스북의 이용자는 1100만 명, 트위터의 계정 수가 800만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전세계 인구의 1/5이 SNS에 연결

되어 있다고 보는데, 길게 보아도 지난 10년 안에 일어난 일이다.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다시 활자문화로의 전환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생각하면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 자체가 정상적인 의사소통 공동체의 형성에 일정한 방해가 된다. 그 변화와 새로운 매체들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정보의 차이가 생겨나고, 이는 그 정보의 질, 가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적 괴리감으로 이어진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상당히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 방식의 차이가 내용의 차이로 번져가기 때문이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 중 하나는 SNS를 통한 의사소통의 방식과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세대와 집단이 보여주는 현저한 견해 차이이다.

의사소통 기술 발달의 결과는 소통의 양이 늘고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우선 정보의 양이 많다. 오늘 처음 가 본 식당의 음식 사진으로부터 전 세계의 유명 동영상, 정치적 호소와 소소한 일상의 단상까지 엄청난 양의 정보가 매일 인터넷상에 오른다. 너무 많은 정보가 인터넷 상에 오를 뿐 아니라, 스스로 확대 재생산하기도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정보 제공자도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지 못한다. SNS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활동한 사람도 자신이 올린 글을 모두 삭제할 수가 없다.

정보와 소통의 양이 많아진 것은 많은 사람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황한 논변보다는 촌철살인의 한 마디가 더 효과가 있고, 그런 짧은 한 마디를 더 많이 던지는 사람이 영향력을 키우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한 번 쓰는 글의 길이를 140자로 제한한 트위터나 휴대전화의 짧은 문자 메시지는 이런 소통방식의 전형이다. 그 결과 소통은 파편적이 되고 그 내용의 타당성과 사실성에 대한 평가는

무디어진다.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이 무서운 이유는 그 진위를 가릴 틈도 없이 정보가 우리 의식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사소통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상호성의 구조다. 카카오톡 같은 매체는 과거의 인터넷 채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속도로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명을 한 데 모아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매체에서 의사소통의 상대는 잘 아는 어떤 사

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다. 이들 매체 특징은 이전의 의사소통 방식이 가지는 친밀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은 대중을 상대하게 한다는데 있다. 친밀한 친구에게 털어놓을 만한 속마음을 친구가 지정되어 있는 SNS 상에 털어놓지만, 실상 이 짧은 한 마디를 누가 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개인의 발언이 그의 권력과 관계 없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은 실상 대단한 것이다. 한 때 아랍의 민주화 운동에 SNS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 한 예다.



많은 이들에게 나의 목소리가 들릴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목소리도 내게 들리게 된다. 내 친구뿐 아니라 내 친구의 친구, 나에게 관심이 있는 누군가도 언제든지 원하면 나와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개방성은 소통의 왜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정원이 사용했다는 '트위봇'은 트위터에서 같은 내용의 글을 동시에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들은 제품을 출시할 때 소위 '댓글알바'를 고용하여 긍정적인 댓글을 집중적으로 유포하기도 한다. 친밀하고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SNS에서의 소통이 사실은 진실과 거짓의 뒤범벅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의사소통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얇고도 넓은 관계망이 형성된다. 'Social network'에서 'society'의 개념이 바뀐 것이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짧은 글이 마음에 들어 리트윗을 하고 '좋아요'를 표시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에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일어나기 힘들다. 정치적 편향성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고 감정에 호소하며 욕망을 자극하고 의도적이 왜곡과 선동을 일삼는 것은 건전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일부 사악한 사람들의 잘못만이 아니다. 새로운 의사소통의 기술들이 인간의 악한 본성 중 어떤 부분을 선별적으로 자극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새로운 상호성의 또 다른 측면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다. 새로운 의사소통에서는 그 소통의 모든 흔적이 기록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 대화의 내용은 잊혀진다. 심지어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자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된다.

과거의 흔적은 반가운 것이기도 하지만, 몇 년 전에 내가 한 말이 어딘가에서 맥락 없이 떠올라다니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기록이 반영구적으로 보존되고, 많

은 이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상호감시와 검열이 가능해진다. 이는 권력자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니라, 권력자를 포함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다. 악의에 찬 '신상털기'가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상에서 기본적인 뒷조사는 너무 간단하다.

몇 년 전 한 방송인이 10년 전 인터넷 방송에서 한 막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비슷한 일이 일반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기업에 입사하려 하는 대학생들은 면접 전에 자신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미리 삭제하기도 하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페이스북의 특성상 이해할만한 일이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구직자들에게 왜 SNS 계정이 없느냐고, 혹시 삭제한 것은 아닌지, 그랬다면 왜 그랬는지 묻는 기업이 생길지도 모른다. 불평할 수도 없다. 국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별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의사소통에 스스로를 노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와 친척들이 카카오톡을 하며 안부를 물을 수 있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구매가 이루어지며 개교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설교를 듣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휴대전화가 문명 퇴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빈곤국가에서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백내장 진단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 한다.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개별 사례들을 가지고 긍정이나 부정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초래하는 근본적인 개념의 변화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새로운 가능성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 변화는 받아들일 만한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기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듯 싶다. 교회버스를 운행해서 한 도시 전역에서 교인을 데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스크린을 통해 설교자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위성교회를 두고 매주 한 설교자의 설교를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목청껏 찬양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볼륨을 높이는 찬양 시간에 대해서, 분란이 생기면 간단히 폐쇄해버리게 될 교회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 시간을 사서 텔레비전 설교를 내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 교회 내 모든 교역자의 심방노트를 전산화해서 개인적인 심방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

새로운 가능성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 변화는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

변화의 속도에 저항하고, 그 내용을 무시하는 것만일 능사는 아닐 것이다. 새로운 상호성을 선용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은 결국 대면하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원초적인 의사소통이다. 작은 교회에 대한 열망, 한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는 교제, 시기와 다툼과 오해를 얼굴을 맞대고 풀어가는 부대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선용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할 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에 스스로를 맡겨버린다 해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오래도록 고백해 온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어떤 기술을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거부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느새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한 최첨단을 걷고 있는 한국 교회에 주어진 엄중한 숙제다.



손화철 벨기에 루벤 대학교에서 기술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 학부 철학 담당 교수이다. 『현대 기술의 빛과 그림자: 토플러와 엘릴』(김영사)을 썼고,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CIR)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 그리고 확장』(창비)을 비롯한 여러 책을 함께 썼다.